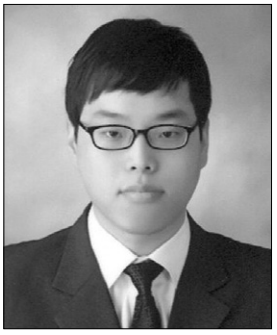
2005~2009년 주요 집단별 소득수준의 변화와 빈곤율 변화

A Trend to Income-level and the Headcount Ratio by Social Class in 2005~2009



이경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소득은 많은 연구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부분의 소개와 소득데이터를 이용하여 5년간 여러 사회집단별(지역별, 가구원수별, 성별, 노인) 소득추세와 빈곤지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국내 소득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소득이 가장 적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의 비교로 공적이전소득이 많은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노인계층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율과 빈곤격차를 통해 국내의 빈곤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인 이상 가구와 노인의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소득은 국가 간 또는 개인들 간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쓰여진다.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나 소득분배와 같이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들(김진일, 2009; 강성호 · 최옥금, 2011)에서 소득은 빠질 수 없는 변수로서 쓰이며, 그 밖에도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가지로 연구되기도 하는 등(양옥경 · 주소희, 2011; 김주원 · 정의철, 2011; 송건섭 · 정미용, 2011) 여러계층의 행위를 규명하는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경제학뿐만 아니라, 보건, 심리, 의료 등 많은 연구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여러 연구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는 소득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세분화된 소득들은 좀 더 복잡하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해주며 특히 다양한 복지정책의 효과를 소득과 연관시켜서 보기에 매우 유용하다. <표 1>은 복지패널에서 수집하고 있는 소득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5차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소득과 빈곤율의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소득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

표 1. 소득분류와 구성요소

소득분류	구성요소(단위: 연간)	한국복지패널의 세부화된 소득요소
1차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기타근로소득+재산소득	임금소득=상용근로자소득+임시근로자소득 재산소득=이자 · 배당금+임대수입+기타
시장(민간부문) 소득	1차소득+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민간보험+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민간보조금
경상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기타정부보조금(장애수당+경로연금+노인교통비+모부자가정수당+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영유아보육료지원+학비지원+국가유공자에대한보조금+농어업정부보조금+기타+유류환급금+진급복지지원금+바우처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세금+사회보장부담금)×12 (*소득은 연단위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월단위로 조사되었으므로 반드시 12를 곱해주어야 함)
총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기타소득)=증여 · 상속+경조금+보상금+사고보험금+퇴직금 · 사회보험 일시금 · 보장성 보험 해약금+기타+동산 · 부동산매매차익

주: 5차조사(2009년 소득) 기준임.
자료: '여유진(2008). 한국복지패널로 본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리

득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집단별 소득분포를 제시하고 이들 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율을 보여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한다.

2.소득관련 지표 산출방식

1) 소득지표 산출방식

소득은 실질소득으로 변화시켜 2005년 이후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실질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RI = \frac{y_t}{z_t} \times 100$$

y는 t년도의 소득이며, z는 t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물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그러므로 2005년의 실질소득과 명목소득은 동일하다[1].

또한, 소득을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소득분포의

1)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유추가 가능하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2분위로 나누어 하위50%의 소득과 상위50%의 소득의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2].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월소득을 사용하였다. 이들 소득을 비교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포함한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각 소득에 포함된 소득요소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빈곤지표 산출방식

빈곤지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빈곤율(HR: Headcount Ratio)과 빈곤격차비율(PRG: Poverty Gap Ratio)을 사용하였다. 빈곤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HR = \frac{q}{n}$$

q는 빈곤선아래의 개인(또는 가구)의 수이며 n은 개인(또는 가구)의 수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빈곤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나뉘어진다[3].

절대적빈곤은 최저 정도의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득상태를 말하며 국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상대적 빈곤은 국가내의 소득분포에서 소득수준이 일정단위 이하인 개인(또는 가구)을 빈곤상태로 정의한다. 빈곤선의 기준은 OECD 방식인 중위소득의 40%, 50%, 60% 중에서 50%를 사용하였다. 빈곤율은 단순하게 국가 내에서 빈곤상태인 가구의 양을 파악하는데에는 좋은 지표이지만 개인의 소득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상태인 가구들의 빈곤의 정도를 확인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빈곤율만으로는 빈곤상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인 빈곤격차(PRG)을 이용하여 빈곤상태인 가구의 빈곤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빈곤격차(PRG)비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PGR = \frac{\sum_{i=1}^{q}(z - y_i)}{nz}$$

z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는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속한 개인의 소득(혹은 지출), 그리고 n은 사회전체의 사람(혹은 가구)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자는 빈곤층 전체의 빈곤격차를 합한 것으로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4]

2) 이는 양극화와는 의미가 다른데 중산층의 범위는 OECD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사이이며 이는 양쪽 다 중산층이 포함된다는 것임. 그러므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커진다 해도 중산층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양극화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3)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빈곤 기준을 이용해서 빈곤율을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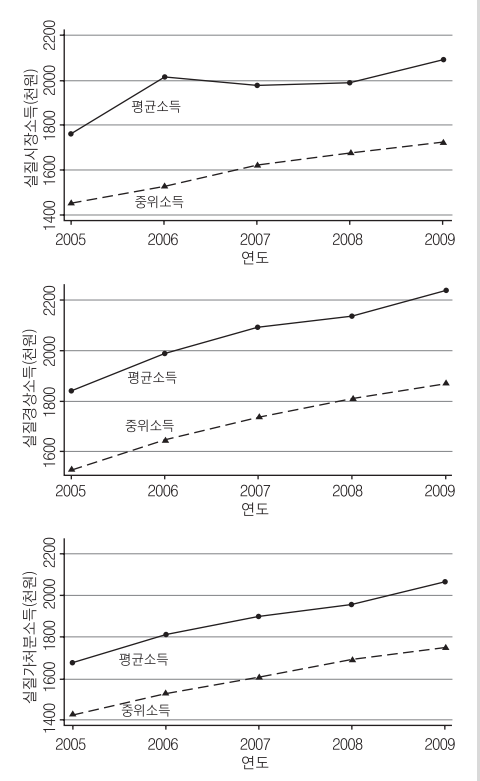
3. 소득관련 지표 분석결과

1) 소득변화 추이

가장 먼저, 전체 가구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추세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시장소득이 2007년에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7~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07년에 확연히 떨어진 이후 시장소득이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큰 경제적 충격 이후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것은 중위소득은 경제충격이 있었던 2007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를 줄여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좁혀졌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2009년에는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



주: 단위는 천원 단위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시장소득과 비교해서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2007년에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2009년 5년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결과를 통해서 2007년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하락했던 가구의 시장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경제위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구에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2008년에 소량 줄었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경상소득에 비하여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좀 더 세분화하여 여러 집단별 소득

4) '김문길 · 김태완 · 전지현(2010). 2010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표 2. 지역별 가구소득 추이

(단위: 천원(월), %)

구 분		전체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시장소득	2005년	1,760	1,451	1,914	1,579	1,698	1,424	1,697	1,365	1,286	993
	2006년	2,014	1,528	2,199	1,661	1,996	1,557	1,827	1,391	1,492	1,086
	2007년	1,977	1,621	2,177	1,756	1,910	1,627	1,885	1,486	1,427	1,150
	2008년	1,988	1,676	2,174	1,867	1,935	1,602	1,816	1,523	1,543	1,208
	2009년	2,091	1,723	2,289	1,907	1,957	1,632	1,992	1,676	1,680	1,340
	연평균증가율	1.9	1.9	1.9	2.0	1.5	1.5	1.7	2.2	2.9	3.3
경상소득	2005년	1,840	1,530	1,978	1,645	1,782	1,509	1,799	1,465	1,403	1,158
	2006년	1,988	1,644	2,079	1,739	2,039	1,684	1,941	1,525	1,537	1,239
	2007년	2,092	1,737	2,259	1,843	2,040	1,747	2,032	1,626	1,604	1,321
	2008년	2,136	1,810	2,300	1,965	2,095	1,729	1,992	1,693	1,721	1,380
	2009년	2,239	1,870	2,401	2,004	2,134	1,775	2,181	1,823	1,871	1,512
	연평균증가율	2.1	2.2	2.1	2.1	2.0	1.8	2.1	2.4	3.1	2.9
가처분소득	2005년	1,679	1,428	1,794	1,531	1,639	1,406	1,643	1,387	1,298	1,080
	2006년	1,817	1,532	1,834	1,616	1,870	1,589	1,766	1,423	1,424	1,176
	2007년	1,900	1,609	2,042	1,719	1,857	1,633	1,846	1,529	1,482	1,239
	2008년	1,959	1,693	2,096	1,829	1,934	1,613	1,836	1,574	1,599	1,324
	2009년	2,067	1,752	2,210	1,866	1,972	1,657	2,012	1,688	1,752	1,446
	연평균증가율	2.3	2.2	2.3	2.1	2.0	1.8	2.2	2.1	3.3	3.2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 중부권-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추이를 보려 한다. <표 2>는 우리나라 지역을 4대 권역[5]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모두 수도권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하여 더 크며, 호남권의 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 시장소득이 전체평균과 다르게 2008년에도 평균소득의 감소가 보이는 특징이 있다. 중위소득의 경우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 두 지역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이 2008년까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남권의 평균소득은 전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나 중위소득이 2008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영남권과 호남권은 타 지역과 반대로 2008년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가 벌

5) 권역을 나누는 방법은 '이경진(2011). 우리나라 지역경제력의 수렴현상에 대한 분석, 중앙대학교' 를 참조하였음.

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의 경우 전체소득과 대부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영남권의 중위소득이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부권의 평균이 2008년에 감소하는 모습으로 보여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감소를 막는데 타지역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처분소득에서도 영남권과 중부권은 경상소득과 동일한 상태의 추세를 보인다.

연평균증가율은 모든 소득에서 호남권이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영남권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수도권과 가장 낮았던 호남권간의 격차도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구원수별 소득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표 3.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추세

(단위: 천원(월), %)

구 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시장소득	평균소득	2005년	1,760	1,237	1,537	1,903	2,117	1,766
		2006년	2,014	1,344	1,652	2,184	2,467	2,264
		2007년	1,977	1,225	1,534	2,309	2,494	2,091
		2008년	1,988	1,308	1,659	2,278	2,475	2,203
		2009년	2,091	1,608	1,735	2,223	2,627	2,175
		연평균증가율	1.9	2.8	1.3	1.7	2.3	2.3
	중위소득	2005년	1,451	720	1,005	1,607	1,896	1,506
		2006년	1,528	707	1,054	1,756	2,004	1,713
		2007년	1,621	718	1,064	1,852	2,140	1,733
		2008년	1,676	789	1,260	1,912	2,186	1,820
		2009년	1,723	960	1,242	1,910	2,301	1,868
		연평균증가율	1.9	3.1	2.3	1.9	2.1	2.3
경상소득	평균소득	2005년	1,840	1,352	1,663	1,986	2,149	1,816
		2006년	1,988	1,374	1,725	2,181	2,354	2,110
		2007년	2,092	1,363	1,780	2,352	2,536	2,219
		2008년	2,136	1,475	1,908	2,403	2,546	2,338
		2009년	2,239	1,772	2,007	2,350	2,683	2,306
		연평균증가율	2.1	2.9	2.0	1.8	2.4	2.6
	중위소득	2005년	1,530	854	1,273	1,674	1,916	1,592
		2006년	1,644	840	1,334	1,843	2,012	1,761
		2007년	1,737	849	1,349	1,922	2,165	1,835
		2008년	1,810	955	1,561	1,988	2,244	1,923
		2009년	1,870	1,155	1,547	1,997	2,372	1,966
		연평균증가율	2.2	3.3	2.1	1.9	2.3	2.3

〈표 3〉 계속

구 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가처분 소득	평균소득	2005년	1,679	1,267	1,527	1,809	1,938	1,651
		2006년	1,817	1,289	1,603	1,979	2,122	1,929
		2007년	1,900	1,264	1,649	2,126	2,265	2,024
		2008년	1,959	1,375	1,777	2,191	2,307	2,145
		2009년	2,067	1,672	1,870	2,158	2,442	2,132
		연평균증가율	2.3	3.0	2.2	1.9	2.5	2.8
	중위소득	2005년	1,428	840	1,187	1,536	1,744	1,444
		2006년	1,532	820	1,250	1,694	1,854	1,638
		2007년	1,609	815	1,299	1,784	1,962	1,713
		2008년	1,693	933	1,462	1,862	2,023	1,796
		2009년	1,752	1,125	1,489	1,861	2,147	1,811
		연평균증가율	2.2	3.2	2.5	2.1	2.3	2.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는 4인 가구였으며 1인 가구가 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소득에서 평균소득의 경우 3인, 4인 가구의 경우는 2007년에도 소득이 증가하고 2008년에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가구는 전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006년에 감소했으며 2인, 3인 가구는 2009년에 감소하였다. 이렇게 감소한 시점은 평균소득이 증가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구는 전체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경우 1인 가구의 2006년 평균소득과 3인 가구와 5인 가구의 2009년 평균소득이 감소했으며,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06년에 감소하였다. 나머지는 전체추세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가처분소득 역시 경상소득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연평균증가율은 1인 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인 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의 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가구와 노인이 없는 가구(비노인가구)의 소득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표 4>는 노인가구과 비노인가구의 소득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분석결과 시장소득의 경우 비노인이 노인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비노인의 경우 5년간 평균 증가율이 2.05%인데 그와 반대로 노인은 1.78%로 증가율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중위소득의 증가가 빨라서 점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을 보면 노년층의 경우 시장소득에서 2007년도의 소득감소를 경제활동으로 회복하기가 힘들

표 4. 노인 · 비노인가구 소득 추세

(단위: 천원(월), %)

구 분		전체		비노인		노인		비노인/노인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시장소득	2005년	1,870	1,575	1,998	1,730	916	594	218	291
	2006년	2,179	1,699	2,323	1,852	1,221	685	190	270
	2007년	2,167	1,804	2,349	1,976	1,064	737	221	268
	2008년	2,205	1,901	2,342	2,011	1,094	733	214	274
	2009년	2,268	1,936	2,414	2,054	1,079	772	224	266
	연평균증감률	2.1	2.2	2.1	1.9	1.8	2.8	0.3	−1.0
경상소득	2005년	1,936	1,645	2,044	1,758	1,131	829	181	212
	2006년	2,119	1,780	2,248	1,908	1,261	898	178	212
	2007년	2,261	1,909	2,415	2,051	1,326	971	182	211
	2008년	2,331	1,999	2,447	2,073	1,388	1,022	176	203
	2009년	2,392	2,027	2,513	2,148	1,402	1,074	179	200
	연평균증감률	2.3	2.3	2.2	2.2	2.3	2.8	−0.1	−0.6
가처분소득	2005년	1,759	1,530	1,853	1,624	1,061	798	175	204
	2006년	1,929	1,658	2,039	1,759	1,190	879	171	200
	2007년	2,044	1,758	2,176	1,873	1,246	929	175	202
	2008년	2,129	1,849	2,230	1,937	1,305	989	171	196
	2009년	2,197	1,891	2,303	1,988	1,334	1,050	173	189
	연평균증감률	2.4	2.3	2.4	2.2	2.5	3.0	−0.1	−0.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적이전소득의 투입으로 그 격차를 매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증가율도 시장소득의 1.8%에서 2.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처분소득역시 경상소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과 비노인 사이의 소득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노인/노인×100의 결과를 우측에 제시하였다. 비노인/노인×100의 경우 중위소득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소득에서 평균소득의 격차가 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되면서 격차를 줄여줬다는 것을 알 수있다.

지금까지 1~5차 한국복지패널의 소득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집단의 소득추세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들 소득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율과 빈곤격차를 통해 빈곤상태를 확인할 것이다.

<표 5>는 전체, 아동 그리고 노인의 상대빈곤지표(중위소득50% 기준)를 나타낸 표이다. 대부분의 빈곤지표들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상대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빈곤율	2005년	20.41	17.04	16.44
		2006년	20.43	16.83	15.99
		2007년	19.62	16.29	15.45
		2008년	19.62	15.56	15.17
		2009년	18.41	14.29	13.47
		연평균증감률	−1.1	−1.9	−2.2
	빈곤격차비율	2005년	9.81	6.13	6.03
		2006년	9.43	5.74	5.61
		2007년	9.24	5.52	5.31
		2008년	8.86	5.09	4.99
		2009년	8.17	4.29	4.05
		연평균증감률	−2.0	−3.9	−4.3
아동	빈곤율	2005년	14.27	12.18	11.75
		2006년	14.34	12.30	11.14
		2007년	13.23	11.15	10.07
		2008년	13.50	10.85	10.66
		2009년	12.89	9.80	9.11
		연평균증감률	−1.1	−2.4	−2.8
	빈곤격차비율	2005년	5.79	3.77	3.74
		2006년	6.00	3.75	3.68
		2007년	5.78	3.16	3.14
		2008년	5.40	3.05	3.12
		2009년	5.28	2.58	2.43
		연평균증감률	−1.0	−4.1	−4.7
노인	빈곤율	2005년	60.36	49.71	48.24
		2006년	58.67	49.15	47.30
		2007년	58.17	49.25	46.75
		2008년	59.01	48.27	46.42
		2009년	57.51	45.61	43.21
		연평균증감률	−0.5	−0.9	−1.2
	빈곤격차비율	2005년	32.17	19.79	18.63
		2006년	30.02	18.63	17.50
		2007년	30.15	19.00	17.53
		2008년	29.94	17.58	16.20
		2009년	29.16	16.01	14.78
		연평균증감률	−1.1	−2.3	−2.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전체소득에서 노인의 빈곤율, 빈곤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소득의 경우 전체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5년간 2%p가 줄었으며, 빈곤격차 비율 역시 약 1.5%p정도 줄었다. 아동의 경우 빈곤율이 2006년도와 2008년도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빈곤격차 비율도 2006년에 늘었다가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의 경우는 2008년에 빈곤율이 늘어났으나 2009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경상소득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동의 경우 빈곤율이 2006년에 늘어났으며 노인의 경우도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모두 2007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전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나 아동에서는 빈곤율이 2008년에 증가하였으며 노인의 경우도 2007년의 빈곤격차비율이 소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4. 결론

이상으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집단별 소득추세와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 소득에도 음의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브프라임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 영향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전 국민의 소득이 내려갔고 하위에 비하여 중상위계층의 소득이 내려간 것이다. 즉, 국가소득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 소득이 증가하였고 그 소득의 분배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가 줄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생각은 본 연구자의 추측과도 같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양극화 지수나 불평등 지수를 통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부권의 경우 타지역과 다르게 경상소득이 2008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정책들이 중부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수별 소득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5인 가구 이상의 소득이 3인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가구라 함은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자녀수가 3인 이상일 경우이다. 이들 노인 또는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소득의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빈곤율, 빈곤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의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